전남여상, 성과연계형 장학사업 '우수'

경제·금융 이해력 테스트 통해 수혜자 선발

미래사회의 핵심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한국예탁결제원 KSD 나눔재단이 주최한 2019년 성과연계형 장학사업에서 5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KSD 나눔재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미래 자본시장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이해력 측정 시험을 치러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와 학생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성과연계형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성과연계형 장학사업에는 전국 52개교가 참여했으며 이중 전남여상은 총 780만 원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받으며 우수학교에 선정돼 명실상부 경제, 금융교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다.

담당교사인 김태연, 김선진 교사는 "실질적인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핵심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여상은 체계적인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뛰어난 취업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 9년간 총32명의 9급 공무원을 합격시켜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삼성화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투자증권 등의 금융기관에 다수의 학생을 합격시켜 취업 중심의 명문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전남여상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빛고을 혁신학교 등을 통해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앞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여상 최규명 교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원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취업 명품학교를 만들겠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특성화고로서 고졸 취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인호 기자

수업혁신은 교육과정 재구성으로부터!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교육청은 11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중학교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어 및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일교과 내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재구성 사례를 통해 학생중심 수업 전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다.

국어과 강사로 온 나주중 수석교사는 '국어와 진로활동을 연계한 꿈 프로젝트 학습과 다문화를 주제로 국어와 타교과를 융합한 다문화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소개하고, 원탁토론을 통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재구성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수학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여선중 수학교사는 자유학기제 주제선택수업을 중심으로 '노래로 만나는 수학, 컬러볼로 맛보는 수학, 슬로리딩 수학' 등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로 바꿔나갈 것인가는 바로 동료교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여수=김도현 기자

완도교육청, 학교회계 운영 교육 실시

완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 업무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학교회계 운영 및 k-에듀파인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0학년도 효율적인 학교회계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2020년부터 도입되는 k-에듀파인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김명식 교육장은 학교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는 학교회계 담당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격려하면서 "학교 구성원간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이 담긴 학교교육계획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완도=김광수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보성교육청, 행복문화의 날 개최

교육공무직원과 봉사직 배움터지킴이 80여 명 대상

보성교육청은 지난 13일 보성공공도서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봉사직 배움터지킴이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오후'라는 주제로 행복문화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관내 소속 직원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느끼는 문화 공유의 장인 클래식 실내악 공연에 앞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친절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봉사직 친절직원 시상의 자리도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모 교무행정사는 친숙하지 않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주었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교육장님께 고마움을 표했다.

백남근 보성교육청교육장은 "학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육공무직원과 봉사직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장 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 및 문화적 소양증진과 직원들의 행복지수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진도, 초·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진도교육지원청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진도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인 조도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가 전체 학교의 76%(초 7교, 중 6교)에 달하고,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읍지역 학교는 과대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민의식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여 읍·면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